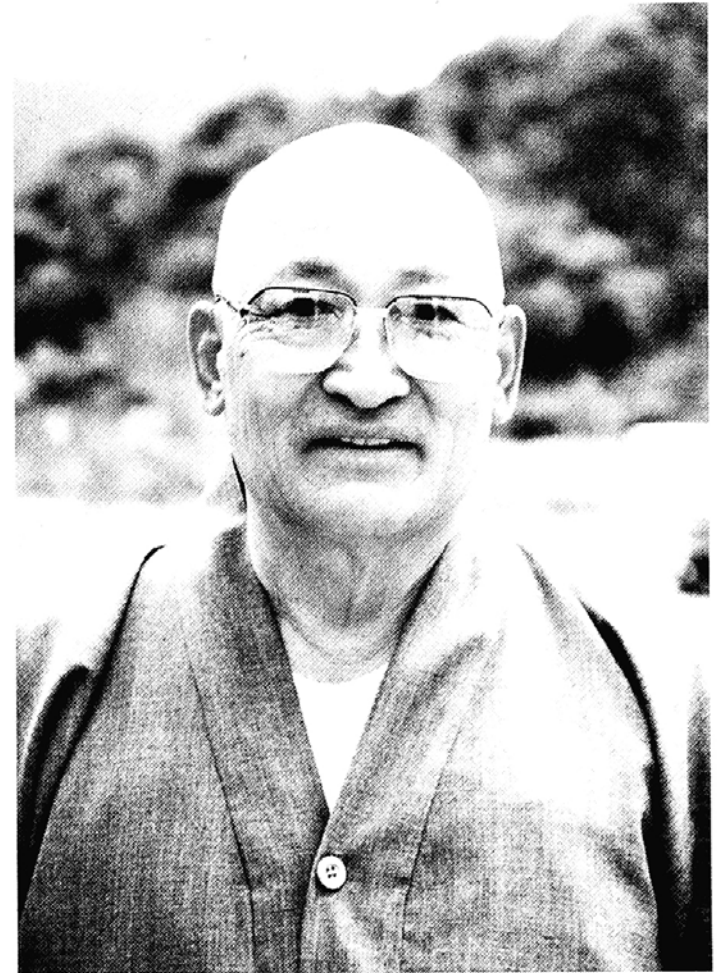


큰스님 수행한담

“잡초 뽑듯 중생병 고쳐야

아공스님 <도술사 주지>



오늘처럼 눈발이 날리고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 칠 때면 항상 행사 생활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리 춥고 힘들었는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돈을 주고 하려고 해도 그런 생활은 할 수 없으니까요. 도선사에 서 청담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행사생활을 시작했어.

- 1924년 충남 예산 초
45년 당진 문산사로 출가
53년 청담스님을 은사로 시미계 주지
64년 공주 마곡사에서 비구계 주지
現 경북 풍기 도술사에 주석

“계단 하나씩 딛고 올라야 정상에 이를 수 있듯 기본 수행 뒷받침 돼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죠”

까지 공양을 직접 가져오시니 노고가 많 습니다”라고 오히려 고마워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수행하실 때는 뒤도 안돌아 보시며 무성하게 하시지만 보통 때에는 너무나 자비스러웠습니다. 행자들이 열불이나 중생을 할 때면 가만히 들으시고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상하게 일러주시기도 했습니다. 반면 청담스님은 우리 행자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즉시 불호령이 떨어지고 참회를 시켰습니다. 한번은 청담스님

께서 우리들에게 큰 꾸지람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철스님께서는 “애들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하시 니가 청담스님께서는 “예전에 우리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대쪽같은 분이셨지요. 행사생활하면서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것이 바로 발우공양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발우공양하는 데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찰을 다니며 발우공양을 해 봤지만 도선사처럼 엄격한 곳

이 없었습니다. 공양시간이 두 시간 이상이 걸렸으니까요. 선방에 앉아 화두를 참구하는 것만이 수행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중생활의 하나하나가 전부 수행이고 화두입니다. 그 가운데 발우공양은 가장 기본적인 수행 중 하나입니다.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딛고 올라야만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수행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어찌 대오각성을 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밥먹는 것까지 모든 자질구래한 생활부터 바로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속에서 배우고 깨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다 수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공양을 하게 해주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공양을 함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공양하기 전에는 비어있는 발우를 보면서 온 마음을 청정하게 가져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공양을

다시 푸는 경서

42장경 <끝>

(40) (佛言)沙門行道 無如磨牛 (불언)사문행도 무어미우 몸행도 심도불행

視大千界 如一詞子 시대천계 여일가자 視阿耨池水 如塗足油 시아욱지수 여도족유

‘사문이 팔정도 따름에 있어 저 맛을 돌리는 소와 같아서는 안된다.

몸은 비록 도 행하나

마음이 따르지 않으니

무슨 쓸모 있겠는가

몸은 비록 도를 행하나 마음이 도를 따르지 않으니 마음이 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거기에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나는 왕후의 지위 보기를 문틈 햇살에 비친 먼지같이 본다. 금은 보화물 기와 조각이나 돌맹이처럼 여긴다.

이 넓고 거친 옷이 내게는 비단같다.

삼천대천 세계도 내게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

청량한 저 아욱지의 물도 내게는 발기름 같이 보인다.

방편의 실법은 요술로 지어낸 보석일 뿐이고 위없는 도리도 실은 꿈결의 비단과 다르지 않다.

볼도 역시 눈 앞에 핀 꽃이나 다를 바 없다.

나는 선정을 수미산을 받치는 기둥

사문은 마땅히

오로지 도만 생각해야

고통을 면할 수 있다

처럼 보고 열반을 종일 깨어있음과 같다고 본다.

번뇌에 미혹되어 뒤잡혀 있거나 진리에 결합이 되어 바름을 지키는 것을 여섯 용이 춤추는 것 같이 여기고 일체가 평등함을 돌 아닌 도리로 본다.

나는 중생교화를 사찰나무같이 여긴다.

이에 대 비구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환희 분황하였다.

龍眼

(41) (佛言)夫爲道者 如牛負重行深河中 (불언)부위도자 여우부중행심니중 疲極不敢左右顧視 疲極불감좌우고시 出離於泥 乃可蘇息 출리어니 내가소식 沙門 當觀情欲 甚於於泥 沙문 당관정욕 심어니니 直心念道 可免苦矣 직심념도 가면고의

‘무릇 도라는 것은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밭을 가면서 처음엔 피로가 극에 달해 좌우를 둘러볼 겨를조차 없다가 진흙밭에서 빠져나오고 서야 한 숨 돌릴 수 있는 것과 같다.

사문도 당연히 오욕정정을 지 진흙밭보다 더 심한 것으로 보아 오로지 도만을 생각해야 고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42) (佛言)吾親王侯之位 如過淵塵 (불언)오시왕후지위 여과극진 親金王之寶 如瓦礫 親金왕지보 여와력 親執素之服 如弊帛 親執素지복 여폐백

016 PCS 최저가격 · 최고보시 이만한 제품을 이만큼 싼가격에 준비하였습니다

부다피아 쇼핑몰이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고객 사은 잔치!

한화 G2-F21



절전기능 -세계최초의 공선서 허용 깨끗한 통화 자동 검색 기능 음성/문자 메시지 기능 17종의 다양한 전화 벨 소리 유해 전자파 방지 도로 (인체에 미치는 피해 제거) 전자 계산기 기능 자기번호 송출 기능 비상전화 다이얼 기능

크 기 125x44x26mm 무 게 144g (소형 배터리 사용) 연속통화 배터리S 90분 배터리M 168분 배터리L 300분

사은 가격 50,000원 (가입비만)

한화 F31



칩PCS중 최소형 한화의 새로운 PCS-F31 Sporty하고 세련된 디자인 초대형 화면 표시창 초경량 PCS 예절모드 일정관리

크 기 107x43x20mm 무 게 77g (소형 배터리 사용시) 연속통화 배터리S 90분 배터리M 160분 배터리L 210분

사은가격 75,000원 (가입비분납)

삼성 애니콜



SMS서비스 이어마이크 폰 접속기능 음성 다이얼 기능 자기지역 번호 자동 다이얼 예약 통화 기능 알람 기능

크 기 114x50x22mm 무 게 105g 연속통화 최대 240분/75시간 통화 대기

사은가격 20,000원 (가입비분납)

LGP-6200F



작고 단단한 싸이언 자동응답기능 독특한 진화벨소리 길어진 배터리 사용시간 말로거는 음성인식은 기본 자동조명기능 지역번호 자동다이얼

크 기 107x45x25mm 무 게 89g (소형 배터리 사용시) 연속통화 배터리M 130~140분 배터리L 260~300분

사은 가격 60,000원 (가입비분납)

삼성 SPH-4700



최대 420분 연속통화/125시간 통화대기 매너기능 한글/영문 SMS서비스 기능 바로 전화걸기 전자계산기/스톱워치 대화형 문자정보서비스 지원

크 기 116x45x23mm 무 게 105g 연속통화 배터리M 240분 배터리L 420분

사은 가격 65,000원 (가입비분납)

요금 납부 방법은

※ 반드시 신용카드 결제 해야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이외는 10,000원이 추가 됩니다.

※ 선불카드 2,000원 증점 증정 (부가서비스 자동연결 3개월 무료이용 요금)

신청서 접수

우편번호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부다피아 쇼핑몰 담당자 앞

전화 : 02-732-1522 / 737-8881(대표) 팩스 : 02-737-0697 / 737-0698,0696

은행

국민은행 006-01-0783-279 농협은행 053-01-227471 우체국 010041-0289770

계좌번호

현대불교신문사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010041-0289770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